

1994년 1월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국가가 적극 개입해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성폭력 피해여성의 증가와 이에 대한 여성들의 끊임 없는 대책요구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제정은 여성들의 요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마지막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이다. 여성의 국회참여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성관련 법률에 대한 제정 및 집행은 거의 남성의 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성관련 법률제정에 대한 남성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그들의 평등의식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연희 국회의원 여자 강제 성추행 사건'은 그 해결자가 바로 국회의원이자 국가의 주요 법안을 의결하는 법사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물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위의 경중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나 이번 사건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가해자의 가부장적 성문화와 성에 대한 이중적인 편견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



불자 세상보기

김영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성문화와 여성인권

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중(醉中)의 일로 여기면서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름다운 꽃만지고 싶은 것이 순리이며 또한 이번 사건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일탈적 성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성들 간에는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성추행, 성희롱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다. 특

히 술자리에서의 노골적인 성적 행동도 지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하며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성답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이번 사건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알고 실수했다'는 그의 변명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타녀(타녀)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찍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정숙한 여성을 덕녀로 놓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악녀로 여기면서 불의의 상태로 삼았다. 남성중심의 잣대에 의한 여성들의 구분/분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나은 과거유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즉 21세기 평등사회 구현이라는 모토가 무색하게 남성적 속의 여성에 대한 선택적 보호와 함께 일부여성들에 대한 지나친 비하의식은 너무나 일방적인 것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남성들의 성문화는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가해자에 대해서 뉴스의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피해여성의 삶에 개입한 폭력성 그리고 그 유희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대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지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들은 성희롱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여성인권과 여성평등,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지고 있다.

<별구경>에서 이르기 '인간이여, 이를 알아라.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 죄악이니 탐욕과 바르지 못한(不正)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기나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탑에 흰 십자형 문양인가. 불탑과 십자가는 손수가 맞지 않아도 한참 거리가 먼 관계이다. 전국 도처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 정부는 그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철책과 같은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관심 있는 이들이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다. 예컨대 안동 신서동7층전탑을 가 보라. 땅지도 않은 우리의 전탑 가운데 하나인 그 탑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의 문양은 바로 십자형이 아닌가.

문화재 보호정책은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민족 유산이자 인류 유산인 문화재는 한 점의 훼손 없이 후세로 물려주어야 한다. 문화재 보호의 제일 원칙은 조성 당시의 목적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상이 사찰을 떠나 박물관의 진열장 안에서 전시품으로 성격 전환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문화재는 그 자신만이 아닌 놓여져 있는 환경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호라거나 보호대 때문에 시각관심을 변형시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문화재 보호장치 '체계화' 필요

보호장치는 차선책이다. 그렇다면 규모의 최소화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문화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 보호장치 때문에 사진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은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문화재와 너무 가까이 서 있거나, 위압적으로 장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을 가리고 있어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을 수 없다면, 이는 문화재 사랑하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어차피 있어야 할 문화재 보호장치라면 보다 체계적이고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절실하다. 문화재 보존의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에 보호장치와 연관되어 특정 규정이나 예산 혹은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무부처에서조차 보호장치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소홀히 하다 보니 불탑에 십자가 모양의 철책이 범람하는 것이다. 성보문화재의 보호 장치를 시공할 때는 불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문화재의 안내판을 보다 현대감각에 맞게 고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문화재 해설의 내용도 문체점이 많고 글자 크기가 작은 사항의 하나도 되었는데, 차체에 보호장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 윤범모(미술평론가)

이렇게 들었다 지도층의 '예의'

세상 사람들 들어야 하는 것이 없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하필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가. <법구경>

정치권이 시끄럽다. 최연희 의원의 여자 강제 성추행으로 떠들썩하다니 이제는 이해한 총리의 3·1절 고향방문으로 소란스럽다. 철도파업 첫날인 3월 1일, 지방까지 내려가 고틀프를 즐긴 것이 화근이다.

이 총리의 고틀프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9월 군부대 오발사건 때 회생자 조문 직전에 고틀프 모임을 가져 논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과 7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때도 그는 고틀프를 즐기고 있었다.

국가 중대사가 발발할 때마다 그는 고틀프장에 있었고, 국정을 총괄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쯤이면 도가 지나치다.

두 사건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더욱 국민들이 분개하는 까닭은 이들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행태다. 여당과 야당에게 진지한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전투구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 대한 존경심, 두려움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자> '덕경'에는 도(道)가 사라지면, 덕(德)이 강조되고 덕(德)이 약화되면 인(仁)이, 인(仁)이 무력해지면 의(義)가, 다음에는 예(禮)가 등장한다는 통찰이 제시돼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지도층'을 모시고 있는 우리 사회가 기대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지방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정치인들에게 인과법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을까.

■ 박익순(취재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중요

각 종단이 복지의 전문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하고 장기적이지 못했던 불교사회복지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을 복지현장에 끌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다. 현재 불교복지시설은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계종 복지시설 종사자만 1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로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그리 높지 않다. 노동시간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훨씬 많지만, 급여는 턱없이 적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종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불교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김용환(서울시 중구 장충동)

종교부터 상생과 화합 이룰 때

나는 요즘 서울 시내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진풍경(?)을 본다.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것. 그들은 왜 상대방의 종교, 또는 교파를 존중하지 않고 공격적인 전도를 하는 걸까? 이런 행위는 전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인들에게 종교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종의 공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인간이 선택한 종교는 진리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다. 종교 자체를 삶의 궁극적 목표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종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가끔 이 원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교계가 적극적인 포교보다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랑과 마음의 포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서로 종교가 다른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가 종교와 종파를 떠나 불교 원불교 개신교의 국내외 성지를 순례하고 왔다. 진정한 종교 화합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정열(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종성문고, 합리적인 운영 기대

종성문고가 현대불교신문사내에 문을 연다니 개원이 기다려진다. 보도에 의하면 종성문고는 2004년 12월 21일 일찍이 종성 스님이 불자들의 교리공부와 스님 불교화자들의 불학 연구를 위해 기증한 장서 가운데 1만5천여권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비교적 큰 규모인 것 같다.

특히 각 나라의 불교대장경과 선행 관련 자료들중에는 대학 도서관 이상의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고 하니 불자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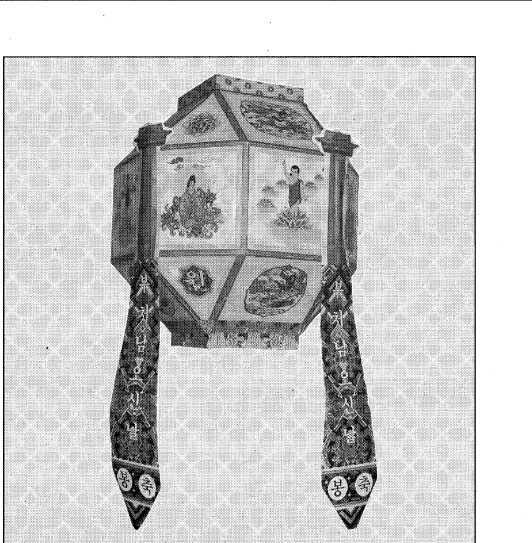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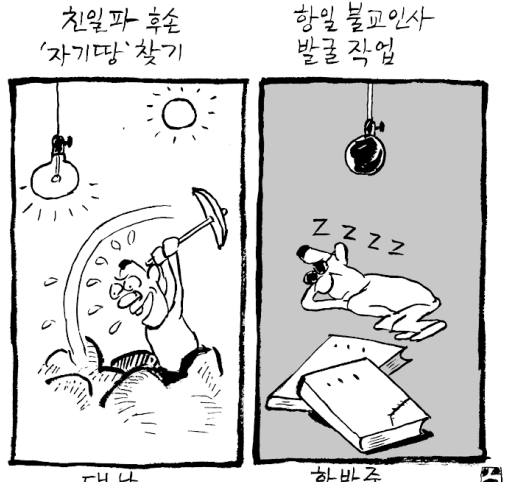
문제는 종성문고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성문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현대불교신문 측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대출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했으니 일단 합리적인 종성문고의 운영을 기대한다.

또한 종성 스님의 유언에 맞게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언제든지 찾아가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아울러 지방에 있는 불자들도 빌려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각종 기증 도서관에 가만 책을 훼손한다는 명분이라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다. 종성문고만큼은 자율적인 운영을 기대해 본다. 물론 그러려면 종성문고를 찾는 이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야 함은 물론이다.

김종국(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연대' 민명 심민섭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현반의 공정으로' 이물없고 및 스티커로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 불이 타지 않아 불이 타지 않게 하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기'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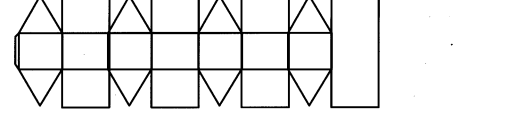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교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풀칠 상태 (풀칠 및 인쇄없이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043) 877-6464 팩스: (043) 877-8239 핸드폰: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 국민포렌텍) ■ 계좌 415051-51-000057 (예금주: (주) 국민포렌텍)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종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종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호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호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 있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해 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34-9490, 334-9491